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한일정상회담 공동 외견

국민 건강·안전우려 불식

강제징용 해법 “안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겠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견 뒤 연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의 전후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원 기자

5일간 350mm 폭우 ‘가뭄 해결’ 광주·전남 제한급수 위기 넘겨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최대 3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광주·전남에 내린 많은 비가 최악 가뭄 해결의 단비가 됐다.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크게 올라 광주는 제한급수 위기에서 벗어났고, 완도 등 전남 섬 지역 주민들도 1년 넘게 이어진 물 고통에서 해방됐다.

7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의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34.8%, 주암댐 30.1%를 기록했다.

동북댐은 호남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지난 3월 14년 만에 저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번 닢새간 호우로 저수율이 급격히 올라 저수량이 3,204만2,000t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상수도 일일 취수량이 약 15만인 것으로 고려하면 200여일 이상 쓸 물을 확보한 셈이다.

겨우 20%대 저수율을 유지하던 주암댐도 저수율이 30% 이상으로 급등했고, 함께 식수원을 쓰이는 주암댐 조절지댐(상사호)도 25.3% 저수율을 기록해 함께 저수량이 2억t을 넘어섰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이번 호우로 인한 빗물 유입이 앞으로 수일 동안 추가로 이어지면 저수량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사실상 올해 제한급수 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오랜 가뭄으로 제한급수 중인 전남 섬 지역도 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완도군 보길도의 식수원인 부황제의 저수율이 지난 5일 100%에 도달해 물이 넘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지난해 3월부터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는 완도군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은 이번 호우로 200mm 이상 비가 내리면서 10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기존 25%에서 63%로 급등했다. 보길도 부황제 등 2곳 저수지는 저수율이 100%를 넘어서 물이 넘쳐 흐리기도 했다.

이에 완도군은 주 1~2회만 급수가 이뤄지던 4개 섬 지역에 대한 제한급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8일에는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금일읍부터 제한급수가 해제되고 9일에는 노화읍 남도지역까지 전면 해제된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3시 기준 고흥 나라도 349.5mm를 최고로 장흥 관산 348mm, 해남 북면 338mm, 완도 보길도 293mm, 여수 초도 291mm, 광양 백운산 288mm, 광주 광산 175mm, 광주 운암 121.9mm 등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용현 기자

강기정·김영록, 10일 ‘군공항’ 첫 회동

민간공항 무안이전 등 주목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을 놓고 입장을 보여 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전남 이전 추진,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한 광주시·전남도·무

안군 간 협약 이행, 전남도의 요구인 ‘군공항 이전지역 선지역 로드맵 수립 후 후보지 선정 절차 착수’ 등 쟁점 사항이 풀릴지 주목된다.

양 시도는 이번 회동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실무 분야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켰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달 24일 군공항 이전을 둔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군공항을 이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광주시(강기정 시장)가 통 큰 결단을 해야 하고, 군공항 이전의 실태를 꼬이게 한 광주 민간공항 이전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사적지 함께 걷기축제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산으로 5·18사적지를 함께 걸으면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염원을 길이 계승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년 5월 13일 (토) 09:00

장소 햇불코스 (전남대학교정문 운동장 → 광주중앙초등학교)

- ▶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5·18기재단 The May 18 Foundation M 전남매일
- ▶ 주관 M 전남매일
- ▶ 후원 전남대학교 광주중앙초등학교
- ▶ 협조 광주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전남대학교 사적1호



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사적3호

광주역광장 사적2호